

# 루프 스테이션으로 1인 합주하기

루프 스테이션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합주할 수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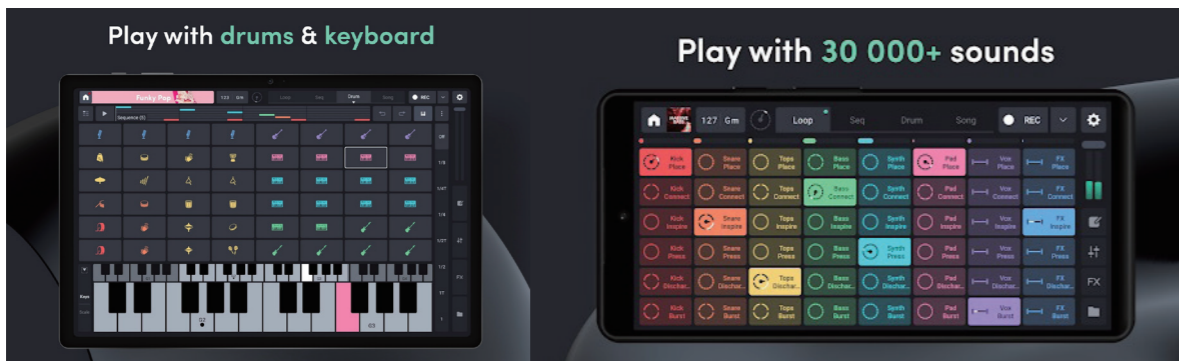
## 합주

합주란 소리가 어울리도록 파트를 나눈 뒤 서로 호흡을 맞추며 하나의 악곡을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. 기악 합주 활동을 하면서 책임감과 앙상블의 하모니를 심미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.

## 루프 스테이션 | Loop Station

루프 스테이션은 목소리, 악기, 소리 등을 순간적으로 녹음하여 구간을 반복하거나 재생하며 소리를 쌓는 매체이다. 루프 스테이션의 페달 또는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, 한 번 더 누르면 저장된 소리가 출력되어 재생 시 녹음된 소리가 연주로 구현된다. 루프 스테이션의 작동 원리에 따라 구간을 반복하여 다양한 음악 요소를 쌓으면 서 음악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루프 음악이라고 한다. 현대 음악에서는 '원 맨 밴드(One Man Band)'라는 개념으로 루프 스테이션 매체를 이용하여 혼자서 합주하고 곡을 만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.

- 1 루프 스테이션을 활용하여 '빌리버(Believer)'를 커버 연주해 보자.
- 2 루프 스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합주 활동을 해 보자.



루프 스테이션 애플리케이션

## 음악 더하기 루프 스테이션을 활용한 음악

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의 곡 'YOLO'는 페스티벌 등의 공연에서 몇 차례 선보였던 곡이다. 기타나 건반 같은 일반적인 악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루프 스테이션만 사용해 완성했다. 스텔라장은 오직 자신의 손가락과 손바닥, 목소리만 이용해 하나의 곡을 만들었다. 이 곡은 손바닥으로 마이크를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된 이후 핑거 스탱과 손뼉 치는 소리, 베이스 음 등이 차례로 쌓인다.

출처: 김수경, 텐아시아 기사, 2019년 7월 5일.



# Believer

레이놀즈 외 5명 작사·작곡

(♩ = ♪<sup>3</sup>)  
♩ = 125

건반  
통  
벽  
드릴  
강통